
민중신학의 어제와 오늘

1. 독재와 대항하므로

1. 나는 민중신학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꼭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민중신학은 서재에서 나온 사변이 아니고, 한국의 정치현장에서 형성된 역사적인 산물이요 신학적인 귀결이다. 구체적으로 군사정권이 수립된 이래 그들의 탄압 밑에서 그 정체를 드러낸 민중과의 만남과 그들의 고난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한 결과 민중신학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말을 먼저 전제해야겠습니다.

2. 신학하는 일부 사람들이 군사정권을 통해서 구조악에 대한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자유주의자였던 저들이 날로 조여드는 이 구조악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들은 한동안 재래신학의 틀에서 찾아낸 주제들인 ‘인권’ 혹은 ‘자유’라는 시각에서 거기에 저항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저항과정에서 이른바 성서에서 말하는 ‘사탄’ 혹은 ‘악마’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권력적인 구조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민중을 만나서 비로소 민중이야말로 이

구조악에 철저히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면서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담지자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야말로 생명의 원천이고, 역사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그들과의 만남은 커다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신학자들을 재래적인 신학에서 해방시키는 연쇄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충격을 받아 저 자신은 일찍이 ‘기독교의 탈지구화’라는 것으로 그 뜻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 민중신학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서남동 교수가 ‘반(反)신학’(anti-theology)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반(反)신학이라는 모순된 언어를 쓴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미 재래신학의 주제들에 흥미를 잃고 비신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 전통신학에서 보면 주변적인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현영학 교수와 문동환 교수 등이 그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4. 1970년대부터 1980년대초까지 서구 신학 내지 신학에서의 탈출(exodus) 과정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민중사건에 참여하는 것과 병행했습니다. 인혁당사건, YH사건, YMCA 결혼식 위장사건 등등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체포, 투옥되었고 그 가족들의 저항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런 민중의 수난에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대학에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쫓겨나고 혹은 감옥에 갇히고 하는 동안에 거리에서, 감옥에서 다른 얼굴의 민중을 만남으로써 신학의 엑소더스 행각은 가속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에서의 엑소더스 과정에서 해석학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저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대변하면 다음 몇 가지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호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목은 달리하더라도 그 내용에서는 중첩되는 것도 있습니다.

2. 민중을 만나므로

민중을 만나면서 민중신학이 체험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첫째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의 전도입니다. 모든 사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 도식에 철저했던 재래신학적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을 아래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곧 ‘신으로부터 인간을’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신을’, ‘인간에서부터 민중’이 아니라 ‘민중에서부터 인간’, ‘계시도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수난의 현장에서 온다’ 등등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칼 바르트(K. Barth)를 중심으로 한 위기신학 등등에서 본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성서 자체에서도 역시 ‘격상된 예수에게서 민중에게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민중으로부터 예수를’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를 볼 때에도 지배체제나 특히 다윗왕조 이래로 군림하는 왕조체제로부터 가난하고 눌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절규하고 신음하고 저항하는 민중의 시각에서 왕권을 보는 등등도 모두가 그런 시각의 소산입니다.

이런 시각은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도시킴으로써 주변적이었던 것이 중심적인 것으로 탈바꿈되는 무수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가령 예수를 귀족화·왕족화하고(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든가 하는) 나아가서 신격화하는 요소들이 그리스도 신학의 중심 관심사였지만, 바로 그런 것들은 낡은 가치관의 산물이고 본래